

# ‘패륜 예산’ 논란, 표심 의식?... 노인일자리 원상복구 가닥

## 2023 쟁점예산

### ④ 공공형 일자리

일자리 6만1000개, 992억 줄여 野·노인단체, 축소 계획에 반발 추경호 부총리, 입장 선회 밝혀 노인 빈곤·표심 등 인식한 듯

#. 서울 종로 서촌에 사는 이 모(85) 할머니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선 수레를 끌고 서촌 바닥을 뒤져 폐지를 줍는다. 얼마전까지 치킨집에서 닭을 다듬으며 용돈을 벌었지만 몸이 힘들어 그만뒀다. 이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공공근로비, 폐지 판매금으로 한달을 버텨야 한다.

노인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숫자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관련 단순 노무직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최종 공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형 ↓, 서비스·시장형 ↑ 기조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한노년회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60만8000개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는 약 10%(6만1000개) 줄은 54만7000개다. 대신 정부는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1만 5000개 늘렸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취업 알선형·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형 일자리는 16만 7000개에서 19만개로 2만3000개 늘렸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1조4584억원에서 내년도 1조5304억으로 720억 원 늘렸다.

하지만 공공형 일자리 예산은 922억 원 줄었다. 공공형 일자리는 월평균 30시간을 일하고 11개월 동안 월에 27만 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을 일하고 10개월 동안 59만 4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장형 일자

리는 참여 노인, 알선 수행기관, 기업에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에 베이비붐 세대 근로를 지원한다”고 편성 이유를 밝혔다.

◆현장선 ‘공공형 일자리 필요’ 목소리 반면,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대해 야당과 노인 단체들은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4일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대한노년회연합회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일자리 확대는 환영하나 공공형 일자리 축소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숫자로는 2만 9000개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정도 증액했다”면서 “그동안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

리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인빈곤 심각·노인 표심

이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 빈곤’과 정부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순위에서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빈곤이 ‘노인의 빈곤’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며 한국을 제외한 평균은 13.1%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보편적으로 연금액을 증액하는 입장과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입장 사이 간극을 좁히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노인 빈곤층의 주요 생계 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삭감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인 노인 일자리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0만 개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161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GPT-4’ 출시 임박하는데... 국내 기업 개발 더뎠다

### >> 1면 ‘인간처럼 사고’서 계속

오픈AI 내년 1분기 내 ‘GPT-4’ 출시 국내 기업은 대부분 ‘GPT-3’ 기반

SKT는 초거대 AI를 지난 5월 오픈 베타 버전으로 처음 공개된 AI 서비스 ‘에이닷(A.)’에 적용했다.

에이닷에서 한국어 특화 GPT-3 기반의 ‘에이닷tv’와 ‘에이닷 게임’을 선보였다. 에이닷tv는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광고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에이닷 게임은 26개 캐주얼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KT는 지난 16일 초거대 AI인 ‘믿음’을 상용화해 AI 전문상담, AI 감성케어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믿음은 다양한 응용 사례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협업 융합 지능’을 보유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믿음은 감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공감하는 AI를 목표로 개발됐으며,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사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말투나 목소리 등을 바꿀 수 있다. 또 이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해 활용하는 등 ‘사람에 더 가까운 대화’를 지향한다.

LG는 AI 연구소가 초거대 AI ‘엑사원’을 출시했으며 각종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LG는 화학·의학·과학·기술 서적 전문 네덜란드 출판사 ‘엘스비어’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화학전문가 AI’를 위해 엑사원을 적용하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초거대 AI를 AICC(AI

콜센터), 챗봇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AI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은 GPT-3 모델 기반의 한국어 특화 AI 언어모델 ‘KoGPT’를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 깃허브(gitHub)에 공개했다. 초기 버전이다 보니 매개변수는 60억개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2040억개, GPT-3의 1750억개에 비하면 작지만, KoGPT 언어모델의 최대 규모를 100배 이상 키운다는 전략이다.

또 언어모델은 아니지만 카카오브레인은 초거대 AI 멀티모달이자 이미지 생성 모델인 ‘민달리’도 깃허브에 공개했다. 1400만장의 텍스트와 이미지 세트를 사전 학습하고 13억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 ◆GPT-4 튜링테스트 통과 알려져

미국의 오픈AI가 다음달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GPT-4’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국내 IT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는 대부분 GPT-3 기반으로 개발됐는데, 지난해부터 이 달까지 초거대 AI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GPT-4가 발표되는 것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AI가 내놓는 텍스트 반응이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되고 활용 비용도 훨씬 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GPT-4가 이미 튜링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인 튜링테스트는 심사위원이 AI와 대화를 나누고 심

사위원 중 30%가 AI를 사람으로 착각하면 통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GPT-4를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GPT-3가 ‘환각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완벽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GPT-3는 이용자가 제공한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환각이라 부른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GPT-3도 각각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모로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국내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신생 기술이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개발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게 기술을 나눠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초거대 AI를 가장 빨리 사용 중인 네이버 관계자는 “하이퍼클로바를 네이버 내부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 네이버가 방대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AI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월부터 일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클로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아직까지 초기 수준이다. 현재까지 1000개 업체에서 신청해 이 중 300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 방역 완화 말만 번지르르 베이징, 제로 코로나 회귀

### ● 차이나 뉴스&리포트

#### 코로나 감염자 확산세에 준봉쇄 학교·식당·목욕탕 등 영업 중단 오락가락 방역조치에 현장 혼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다시 준봉쇄 수준으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루 코로나19 감염자가 천명 가까이 되면서 재택근무와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전환,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중앙 정부가 이달 방역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감염자 급증에 사실상 ‘정밀 방역’을 포기하고 엄격한 ‘제로 코로나’ 시대로 되돌아갔다.

21일 베이징시에 따르면 전날 무증상자 808명을 포함해 962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 하루 사이 300명이 넘게 늘어났으며,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9일에도 80대 감염자가 사망한 바 있다. 중국 전역을 통틀어서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반년여 만에 처음이다.

베이징에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는 차오양구다. 인구 350만명의 차오양구는 베이징의 최대 행정구역이며, 한 인타운인 왕징이 위치한 곳이다. 아파트 봉쇄 등 통제를 강화했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당초 중앙정부가 금지하겠다고 했던 확실적인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요식업소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식당 내 영업은 중단해야 했으며, 헬스장과 목욕탕, PC방 등 밀폐식 유흥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았다. 모든 학생들의 오프라인 교육 역시 중단됐으며, 오프라인 회의나 단체 활동 등은 연기가 권고됐다.

준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는 지난 봄과 비슷하지만 현장에서의 혼선은 더 컸다.

앞서 중앙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방역 완화를 내세운 탓에 통제 강화 대상과 해당 조치들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코로나19 검사소가 무더기로 폐쇄됐다가 다시 설치되기도 했다. 중앙 정부 방침에 따라 의무 PCR 검사를 없앤다며 검사소들이 문을 닫았지만 실제 출근이나 등교는 물론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면서 시민들은 검사소들을 찾아 헤매고 몇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무원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효율 제고와 경기 부작용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2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본토에서도 밀접 접촉자의 격리를 다소 완화하고, 관리구역 조정과 확실적인 방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안성미 기자 smahn1@